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 태 연[†] 최 상 진 김 효 창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두 개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아동(혹은 아이), 어른(혹은 성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한국대학생의 사회적 표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1은 한국대학생 97명(남: 28명, 여: 69명)을 대상으로 아동과 어른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어른다운 어른과 대비되는 아이의 특성은 대부분 성격적인 측면과 관련되었으며, 특히 아이는 어른에 비해 외향성이 높은 반면, 호감성, 성실성 및 교양에서의 수준은 낮았다. 또한, 아이와 어른 모두 그들의 행복과 불행은 거의 대부분 대인관계적 특성과 건강, 가정의 경제적 환경이나 사회적 성취수준에 의해 결정되었다. 반면, 좋은 아이는 성격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독립성 등 높은 호감성과 성실성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특성은 아이다운 아이의 특성보다는 어른다운 어른의 특성과 매우 유사했다. 연구 2에서는 한국대학생 57명(남: 16명, 여: 4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은 성격이나 자아개념, 신체적 및 과업적 특성에서 아이와 어른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행복하거나 불행한 청소년은 아이 및 어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적 특성과 과업적 특성 혹은 환경적 특성에 의해 크게 결정되었다. 그러나, 좋은 혹은 나쁜 청소년은 아이의 경우와는 달리 성격에서의 호감성과 성실성 이외에도 자아 관련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과업적 특성에 의해서도 규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 및 인간발달의 입장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표상, 아동, 어른, 청소년, 성격특성, 관계적 특성, 과업적 특성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2000-005-C00012).

† 교신저자: 정태연,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120-749). e-mail) tjung@yonsei.ac.kr

오늘날 아동(혹은 아이)과 청소년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그 어느 시기보다 급등하고 있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UN의 아동권리협약을 근간으로 출범한 한국아동권리학회는 학교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차별이나 아동학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가하는데 그리고 아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변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대학 내 청소년학과와 동장은 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높은 관심과 학술적 연구에 대한 요구의 한 반응이다. 제도적으로도, 한국사회는 아동을 가족구성원들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학대방지법 그리고 사회적 병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는 조기교육과 대학입시 등 교육적으로도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는데 크게 몰입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관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즉, 한국인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표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근래의 연구는 많지 않다. 한 사회의 아동관은 아동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일관된 관념으로서, 이 관념 가운데는 아동에 대한 태도나 기대 또는 취급방식 및 평가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박선영, 1981). 마찬가지로, 청소년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청소년을 전반적으로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대학생을 이용한 두 연구를 통해서 아동과 어른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1: 아동과 어른에 대한 사회적 표상

연구 1에서는 아동과 어른(혹은 성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을 알아볼 것이다. 먼저, 본 절에서는 사회적 표상이론 및 이 이론과 관련된 아동연구들을 소개할 것이다. 그 다음, 아동에 대한 서구적 관점과 한국의 전통적인 입장을 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표상

사회적 표상이론(Moscovici, 1981; 자세한 논의는 최상진, 1998 논문을 참조)에 따르면, “사회적 표상은 대인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체계, 진술체계 그리고 설명체계로서, 그것들은 일상생활과정에서 생성된다.” 또한, “사회적 표상은 세계에 대한 의견, 이미지 또는 태도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론체계 또는 지식체계로서, 현실의 발견이나 조직화를 위해 사용되는 독립된 체계”이다. 즉, 사회적 표상은 가치체계, 아이디어체계 그리고 행위로의 실천체계를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사회적 표상은 개인에게 물질세계와 사회적 세계를 이해하고 통제하는데 필수적인 질서를 제공해 주고, 세계의 제반사항에 대한 법칙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Jaspars & Fraser, 1984).

사회적 표상이론은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준의 해석방식이 아니라, 사회 속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로서의 해석방식 그리고 해석에 사용되는 총체적인 이론과 해석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관심을 둔다. Farr(1987)의 표현을 빌면, “사회적 표상은 세상에(in the world) 있으며 동시에 머리 속에(in the head) 있다.” 따라서, 사회적 표상이론은 주체와 객체, 인식과 대상, 지각자와 대상물을 따로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혼합된 실체가 사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사회적 표상이론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면 가시적인 행동이건 추상적 현상이건 또는 인지-감정-정신적-종교적 과정이건 모두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여 사회적 표상이론의 준거현상이 될 수 있다. 즉, 문화적인 모든 현상은 사회적 표상이론의 연구대상이 된다.

사회적 표상이론에서는 사회적 표상을 자극에 대한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독립변수로도 보며 동시에 행동에 대한 독립변수로도 본다. 즉, 사회적 표상이 자극을 해석하고 동시에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표상과 자극간에는 순환적인 관계가 있어서, 사회적 표상은 기본적으로 자극에 근거하여 형성되지만, 일단 형성된 사회적 표상은 그 자극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 표상은 단순한 설명 개념이 아닌 설명되어야 할 현상이다. 사회적 표상은 특정 개념을 특정 자극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표상의 내용은 그 자극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표상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심리학의 최근 연구들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시 아동이나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지가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다룬 연구들이 많다(Goodnow, 1988). 이 연구들에 따르면,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따라 부모-아동의 상호작용 유형이 달라진다. Sigel, McGillicuddy-De Lisi와 Johnson (1980)에 따르면, 자식을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부모는 아동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질문을 통하여 그

들이 스스로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반면에, 아동을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는 부모들은 직접적인 지시를 통하여 교수하는 경향이 강했다.

아동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러한 인식은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자녀 발달의 시기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Goodnow, 1985), 일본 어머니는 미국 어머니에 비해 울지 않는다는가, 화를 조절하는 등의 정서적 행동, 어른에 대한 예절과 순종 등의 교육시기를 더 빠르게 지각하고 있으며, 미국 어머니는 일본 어머니에 비해 의심이 날 때 물어 본다든가 자기 견해나 느낌을 표현하는 등의 언어적 주장과 다른 사람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더 빠른 시기에 학습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Nimio(1979)는 아동의 인지 및 신체 발달의 시기와 특정 양육행동을 시작할 적절한 시기에 관한 부모의 인지를 비교하였는데, 신체적 영역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인지 영역에서는 아시아 출신 어머니에 비해 서구의 어머니들이 인지발달과 관련된 양육활동을 보다 이른 시기에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특정 사회는 자신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어린 시기에 그러한 행동을 기대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이러한 결과는 함축한다.

또한, 기존의 한국연구들도 아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어머니가 아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학업성취는 더 높았다(전경숙, 1992). 또한, 전반적으로 볼 때, 아동의 자신에 대한 신념,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신념,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신념이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아동과 부모의 신념이 일치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및 사회적 능력

을 더 높게 지각했다(전경숙, 1996). 마지막으로 이희선(1995)은 일상생활의 문제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언어상호작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어머니들은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아동에게 합리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즉, 아동으로 하여금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사실이나 규칙을 제공하여 문제해결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어머니들은 성인중심의 인지발달을 강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요약하면,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표상, 가령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인식이 아동의 행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문화적으로 보편적이기보다는 특수한 현상으로서, 특정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달한 사회적 표상은 그 문화 내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특성들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한국문화 속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알아보는 것은 아동에 대한 그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양의 아동 개념

아동에 대한 개념은 역사·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가령, 반론도 존재하지만(Borstelmann, 1983), 서양의 경우 중세에서는 아동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었을 수 있다. 중세의 미술품이나 초상화를 연구한 결과, 그 시기에는 오늘날과는 달리 아동이 성인의 축소판으로 묘사되어 아동이 어른의 얼굴과 신체구조를 가진 ‘작은 어른’으로 묘사되었다(Aries, 1962). “12세기 정도까지 중세의 미술은 아동기의 존재에 대해 무지했거나 혹시 알았더라도 묘사하려는 시

도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아동의 묘사를 등한시한 것이 예술가의 무지함이나 무능력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세에는 아동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Aries, 1962, p. 33) 뿐만 아니라, 중세에는 아동만을 위한 특별한 의복이나 놀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어른은 아동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일상사 속에 참여시켰고, 노동에 있어서도 아동은 별도의 배려를 받지 못했으며, 그 시기에는 아이들이 어른과 다른 존재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념도 부재했다(김정운, 2000, 2001a; 조형근, 1999).

아동에 대한 중세의 이러한 인식도 서서히 변화했다(조형근, 1999). 가령, 16세기에 들어와서 죽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림에 등장하였는데, 이는 아이들의 죽음이 어른의 경우와 같은 불가피한 상실이 아님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어른들과는 차별되는 아이들의 복장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아동 문학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아동을 단순한 어른의 축소판이 아닌 독자적인 관심과 요구를 가진 존재로서 인정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7세기에는 아동에 대한 관념이 무절제(immodesty)에서 순진무구(innocence)로 변화하였다. 로크(Locke)는 아동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결정된 어떠한 속성도 소유하지 않은 백지(tabula rasa) 상태에 있으며, 그들이 속한 환경에서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감정과 사고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보았다(송명자, 1999). 루소(Rousseau)에 따르면,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각기 독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재적 잠재력은 각 발달단계에서 환경이나 교육에 의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통제나 억압을 받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최대한 발달하게 된다(송명자, 1999).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루소와는 달리 순진무구한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여, 아동

을 홀로 있도록 방치하지 않고 감시하며, 그들의 응석을 허용하지 않고 엄격한 규칙에 익숙해지도록 하며, 그들에게 정숙함과 신중한 태도를 발달하도록 요구하였다. 결국, 아동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아동을 어른들의 난잡한 세계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아동의 인성과 이성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귀착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아동관은 UN이 1989년에 공포한 아동권리협약 속에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이 협약의 기본철학은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고유한 인간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이 단지 작은 어른 혹은 약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들이 존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안동현, 1997). 아동의 이러한 권리에는 크게 보호와 자율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Franklin, 1986). 보호적 측면에서는 아동이 영양과 양육의 측면에서부터 정서적 및 행동발달의 측면에 이르기까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자율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아동의 자율적 자기결정, 선택 및 판단력을 강조하여, 아동이 자신의 상황을 규정하는 능력을 통해 독자적인 결정에 이르는 행동의 주체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을 종합해 보면, 아동이란 성장 및 발달하는 존재로서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으며, 아동은 어른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아동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서양의 경우 중세까지는 아동은 아동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어른의 축소판'으로 존재했다. 그 후, 아동은 성인과 질적으로 다른 존

재 즉, 순진무구한 존재로서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이해되었으며, 현대의 아동은 보호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는 주체적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아동 개념

한국의 아동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과는 달리 한국의 사상과 가치관을 지배해 온 전통적 사상 특히, 불교와 유학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경임(1980)은 불교의 아동관을 이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불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전에서는 인간일생의 변화과정을 태내와 태외로 구분하는데, 태내를 4기, 5기, 8기로 구분하는 다양한 설이 있으며 태외도 4기, 5기, 10기로 구분하는 설들이 있어 일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발달단계를 태내시기에서부터 다루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불타는 모든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자녀 사랑이 가장 깊은 것으로서, 부모와 자녀는 일체이며 가장 친밀한 벗이고 동반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사랑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듣게 하며, 알맞은 때 결혼시키고,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며, 사회인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 모셔야 하고 부모의 심신을 편안하게 해야 하며 직업을 가져 부양해야 한다.

지금까지 유학의 아동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선시대 문헌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령, 신양재(1995)는 조선시대 아동에 관한 문헌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는 보통 15세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있으며, 아동의 정의적 특성으로서 무한정의 욕구 상태를 가정하고 있고, 이러한 욕구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어린 아이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보통 3세부터 훈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3세부터 10세까지 가장 강조해야 할 훈육의 내용은 사회적 행동에 관한 것으로서, 성 전형화, 공경, 검양 등 상호관계에서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독립적인 자아를 강조하는 서구문화와 달리 인간존재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간의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는 규범을 강조하는 한국문화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Shweder & Bourne, 1984), 이러한 규범적 기대가 초기 사회화과정에서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김향은(1995)은 문자교재와 유학교재 등 아동교육서에 나타난 아동교육 원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의 기본 목적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인간 즉, 전인적인 인격체를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고 들어서 귀감이 될 만한 인물들이 시범과 모범을 보이고, 아동은 벗이나 스승, 성현들의 선한 행실을 거울삼아 이를 좇아서 모방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동기유발 등 자발성과 초기의 경험을 중시하여 유가의 예절을 습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아동마다 지니고 있는 개인차와 자질을 고려한 교육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문미옥과 류칠선(2000)은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을 분석하였다. 첫째, 소학의 교육목적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소유한 성인이 되도록 교육하는데 있다. 성인의 모습은 주변을 깨끗이 하고 예의 바른 생활을 하며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 둘째, 소학의 교육내용은 먼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으며, 건강생활의 내용으로는 주변의 정리정돈과 바른 식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생활습관의 교육내용으로는 아동들이 부모, 어른, 스승 등의 대상과 상황에 따른 인사

예절, 언어예절, 의복예절과 음식예절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였다. 개인생활의 내용으로는 수신을 위하여 태만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과 의로운 마음가지기, 감정과 욕구조절하기, 자기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용모단정하기 등을 강조했다. 가정생활의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자애롭지만 엄격하게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집단생활에서는 친구간에 서로 존중하며 의견차이를 선하게 조정하는 방법, 어른과 스승에 대한 공경, 공공규칙을 지키고 서로 협력하기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방법으로는 지행합일, 인을 통한 승화된 차원의 자기조절교육, 성인을 모방하되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구성해 가는 탐구학습을 강조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아동관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 근현대에 이루어진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김태오(2000)는 소파 방정환의 아동관을 분석하였다. 소파의 아동관에 따르면, 아동은 진선미한 존재 즉, 천진난만하며 순진무구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창조력을 지닌 존재이다. 또한, 아동은 성장하는 존재로서 개발할 많은 잠재력을 지닌 존재이다. 이 때, 성장을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교육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과 내용 중심이 아니라 아동 중심적인 교육이며, 또한, 강제와 억압이 아닌 아동의 자율성에 근거한 교육을 의미한다.

손병환(1978)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아동관 및 자녀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아이가 착한 성격 혹은 백지로 태어나며, 선천적인 영향보다도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아이의 자질과 잠재력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교육이 권위적이지 않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가 크며, 지적인 측면보다는 정서적이고 인성적

인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여대생들은 아이가 미래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현재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로 보는 특성이 더 강해서 그들의 자율적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요약하면,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들은 아동을 독립적인 존재로서보다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해하기 때문에(김효창, 손영미, 박정열과 최상진, 2000), 아동의 의미를 그들의 부모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아동을 일종의 순수한 존재로 개념화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 특히 가정교육을 중시하였다. 교육은 인간의 도리 즉, 인의예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가령 사서삼경(四書三經) 등 유학에 대한 공부는 기존의 사회가 설정해 놓은 이상적인 성인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지, 새롭고 창의적이며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은 아니다. 결국, 불초소생(不肖小生) 불효자식(不孝子息)의 굴귀에서처럼, 교육의 목적은 아동을 바람직한 성인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와 관련된 두 연구(김태오, 2000; 손병환, 1978)에서 나타난 아동관은 몇몇 측면에서 전통적인 아동관과는 상당히 다른 반면, 서구적인 아동관과 일치하는 점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연구 1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동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역사·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바, 한국의 전통적 아동관은 서구의 그것과는 상당히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전통적 아동관은 오늘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또한, 한국사회의 아동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

헌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측정을 통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연구 1에서는 한국대학생이 아동과 어른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방 법

참가자

서울에 위치한 한 사립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97명(남: 28명, 여: 69명)이 연구 1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13(SD = 3.42)세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연구 1에 참가하였으며 연구참가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

측정도구와 절차

개방형 질문지(open-end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아이와 어른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알아보았다. 연구자들은 이 질문지를 통해 아이와 어른의 서로 대비되는 특성들, 아이다운 아이, 어른다운 어른, 행복한 아이, 행복한 어른, 불행한 아이, 불행한 어른, 좋은(혹은 바람직한) 아이 및 나쁜(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아이의 특성들을 각각 하나씩 총 9개의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질문에 서 각 참가자들이 기술할 수 있는 특성의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아이 및 어른과 관련된 특성들은 신체적, 성격적, 대인관계적, 사회적 등 모든 측면과 관련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아이 및 어른에 해당되는 연령범위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러한 자료수집은 심리학 관련 수

업시간에 이루어졌는데, 수업이 종료된 후 설문지를 참가자들에게 배부하여 주어진 문제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결과 및 논의

먼저, 참가자들이 평가한 아이와 어른의 연령 범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이는 3.65(SD = 2.74)세부터 12.98(SD = 3.52)까지 그리고 어른은 20.83(SD = 2.69)세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즉, 참가자들은 아이와 어른 사이에 또 다른 연령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다음, 개방형 질문지로 얻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 문제별로 제시된 특성들을 전적으로 그 내용에 기초하여 성격적 특성, 신체적 특성, 관계적 특성, 환경적 특성과 과업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성격특성 관련 내용은 Goldberg(1990)의 Big Five 분류체계, 즉 외향성(extroversion), 호감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그리고 교양(culture)을 참조하여 5가지 범주로 분

류하였다. 또한, 아이와 어른의 신체 및 외모와 관련된 내용은 신체적 특성으로, 가족이나 친구 및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반응은 관계적 특성으로, 가정이나 주변적인 상황과 관련된 반응은 환경적 특성으로, 그리고 일, 직업 및 학업 성취 등과 관련된 반응은 과업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먼저, 참가자들의 성별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참가자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최종 자료분석은 전체 반응에 근거하였다.

먼저, 어른과 대비되는 아이 그리고 아이와 대비되는 어른의 특성 각 314개의 반응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아이의 특성에 대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처럼, 전체 반응의 75%가 5가지 요인의 성격특성 그리고 5.9%가 신체적 특성과 관련되었다. 이러한 6개의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97.54$, $df = 5$, $p < .001$. 특히, 성격특성 중에서 호감성(31.2%), 성실성(13.3%) 및 교양(13.4%)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은 이 세 요인들이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임을 지적해 준다. 즉, 어른과 대비되는 아이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아이는 자신을 잘

표 1. 어른과 대비되는 아이의 특성들(총 314개)

차 원	반 응 내 용	백분율
외향성	잘 뛰노는(3.4) 활발한(3.8) 시끄러운(1.2)	8.4
호감성	잘 웃는(3.2) 솔직한(7)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4.8) 순진한(8.8) 때때로(4.1) 눈치 없는(2.2) 기타(1.1)	31.2
성실성	산만한(9) 참을성 없는(3.1) 책임감 없는(2.5) 의존적인(6.8)	13.3
정서안정성	변덕스러운(1.5) 충동적(4.1) 걱정 없는(2.2) 잘 자는(9)	8.7
교양	호기심 있는(4.4) 상상력 있는(7) 창조력 있는(6) 지식이 없는(2.2) 사고수준이 낮은(5.3) 기타(2)	13.4
신체적 특성	작고 약한(3.7) 귀여운(2.2)	5.9
기타		19.1

표 2. 아이다운 아이와 어른다운 어른의 특성들

차 원	반 응 내 용	백분율
<u>아이다운 아이(총 392개)</u>		기타: 8.1
외향성	잘 뛰노는(17.1) 시끄러운(1.3)	18.4
호감성	잘 웃는(7.1) 잘 우는(6.6) 솔직한(4.3) 자기중심적(7.6) 순진한(6.1) 떼쓰는(12.8) 말 잘 듣는(3.6) 눈치 없는(1)	49.1
성실성	실수하는(1.8) 산만한(5) 참을성 없는(2.6) 의존적인(4.9)	9.8
정서안정성	변덕스러운(8) 충동적인(5) 잘 자는(1.8)	3.1
교양	호기심 있는(4.1) 상상력 있는(1) 단순한(1.5) 말 잘 못하는(1.3) 모방하는(5) 지식이 없는(5)	8.9
신체적 특성	귀여운(2.6)	2.6
<u>어른다운 어른(총 418개)</u>		기타: 4.0
외향성		0.0
호감성	배려하는(20.9) 도와주는(5.5) 분별 있는(6.2) 남을 존중하는(3.3) 정직한(1.7) 친절하고 착하고 믿을 만한(3.1) 기타(1)	41.7
성실성	책임감 있는(8.8) 참을성 있는(5.5) 절제하는(3.1) 성실한(5.9) 과묵하고 진지한(10.7) 모범이 되는(3.1) 주관(가치관)이 있는(5.2)	42.3
정서안정성	차분한(2) 침착한(1.4)	1.6
교양	지혜가 많은(1.9) 판단력이 있는(2.6)	4.5
과업적 특성	목표와 꿈이 있는(5.9)	5.9

드러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며 순진하고, 책임감이나 참을성이 없고 의존적이며, 지적인 수준은 낮지만 높은 호기심과 상상력 등을 갖고 있었다. 그 외에도 아이는 활동적이며, 정서적으로도 충동적이고, 신체적으로는 어른에 비해 작고 귀엽다. 반면에 아이와 대비되는 어른은 아이의 이러한 특성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서, 아이다운 아이에 대한 392개의 반응과 어른다운 어른에 대한 418개의 반응을 각각 분류하였다.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아이다운 아이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어른과 대비되는

아이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게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유형들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 = 392.44$, $df = 5$, $p < .001$. 특히, 성격특성 중에서 외향성과 호감성은 아이다운 아이를 특징짓는데 훨씬 더 중요했다(각각 18.4%와 49.1%). 즉, 아이다운 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는 잘 뛰어 놀고, 정서적 및 인지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자기표현을 하며, 떼쓰고 자기중심적이며, 순진하고, 의존적인 것 등이다. 어른다운 어른의 특징으로 분류된 5가지 유형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 = 3771.04$, $df = 4$, $p < .001$. 어른다운 어른은 성격차원의 호감성(41.7%) 및 성실성(42.3%)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

표 3. 행복한 아이와 행복한 어른의 특성들

차 원	반 응 내 용	백분율
<u>행복한 아이(총 458 개)</u>		기타: 8.5
외향성	잘 뛰노는(5.7)	5.7
호감성	낙천적인(2.2) 잘 웃는(7.9) 솔직한(2.6) 배려하느(2) 순진한(9)	15.6
성실성		0.0
정서안정성	걱정이 없는(1.5) 잘 자는(2.6)	4.1
교양	지능이 높은(7) 호기심 많은(7) 말 잘하느(7) 공부 잘하느(9)	3.0
신체적 특성	건강한(9) 잘생긴(1.5)	10.5
관계적 특성	친구가 많은(10.9) 가족의 사랑을 받는(27.5) 주변사람의 관심을 받는(3.5)	41.9
환경적 특성	경제적으로 풍요한(4.4) 환경이 좋은(2.4) 자유롭고 기회가 많은(3.9)	10.7
<u>행복한 어른(총 480 개)</u>		기타: 7.0
외향성	자신감 있는(1.4)	1.4
호감성	잘 웃는(1.5) 관대한(2.3) 도와주는(1.5) 정직한(2) 낙천적인(1.2)	6.7
성실성	주관이 있는(1.9) 인격을 갖춘(1.4) 최선을 다하느(1.9)	5.2
정서안정성	걱정이 없는(1.2) 만족해하느(2.1)	3.3
교양	지혜가 있는(1.5)	1.5
신체적 특성	건강한(5.8)	5.8
관계적 특성	가정이 화목한(27.7) 친구가 많은(8.7) 주변사람의 관심을 받는(4)	36.8
과업적 특성	경제적으로 풍요한(9) 명예와 지위가 있는(1.7)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3.9) 직업적으로 성취한(14.4) 목표가 있는(3.3)	32.3

다. 특히, 성실성이 아이와 대비되는 어른의 특성으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어른다운 어른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으로 어른다운 어른은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며 존중하는 등 자신보다는 타인을 우선시하는 특성 그리고 참고 절제하며 책임감있게 진지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와 어른의 대비되는 특성처럼, 이러한 결과는 아이다운 아이와 어른다운 어른도 어느 정도 반대되는 성격적 특성에 의해 구분됨을 보여준다.

행복한 아이에 대한 458개의 반응 및 행복한 어른에 대한 480개의 반응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행복한 아이의 특성은 7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 = 380.29$, $df = 6$, $p < .001$. 전반적으로 행복한 아이는 성격적인 특성에서의 호감성(15.6%) 및 신체적(10.5%), 관계적(41.9%) 그리고 환경적(10.7%)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행복한 아이는 성격적으로 활발하며 잘 웃고 낙천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관계적인 측

면에서는 친구가 많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풍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아이였다. 행복한 어른의 특성은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 = 593.56$, $df = 7$, $p < .001$. 행복한 아이의 특성과 비슷하게 행복한 어른도 관계적이거나(36.8%) 과업적인(32.3%)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성격적으로 타인지향적이고 낙천적이며 성실한 점이 행복한 어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가정이 화목하고 친구가 많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행한 아이에 대한 436개의 반응과 불행한 어른에 대한 465개의 반응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불행한 아이의 특성은 외향성(2.3%), 호감성(10.1%), 정서안정성(1.8%), 교양(1.1%), 신체적(11.9%), 관계적(53.0) 및 환경적(12.4%)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유형들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 = 654.77$, $df = 6$, $p < .001$. 불행한 아이는 행복한 아이와 반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특히 성격적으로 말이 없고 감정적 표현을 하지 않으며 세상에 물든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으로는 병약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친구가 없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아이였다. 불행한 어른의 특성은 외향성(1.6%), 호감성(4.9%), 성실성(1.2%), 정서안정성(3.6%), 교양(0.6%), 신체적(7.1%), 관계적(38.4%) 및 과업적(33.2%)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유형들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 = 672.94$, $df = 7$, $p < .001$. 불행한 어른 역시 행복한 어른과 반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성격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부정적이며 우울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관계적으로는 친구와 가

정이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직업이 없으며 자신의 꿈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아이와 어른 혹은 아이다운 아이와 어른다운 어른을 구분하는 성격적 특성이 그들의 행복이나 불행과는 크게 관련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신에, 이는 아이와 어른 모두의 행복과 불행은 건강과 대인관계 그리고 환경이나 과업적 특성, 특히 경제적인 수준에 의해 대부분 결정됨을 보여준다.

좋은(혹은 바람직한) 아이에 대한 384개의 반응과 나쁜(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아이에 대한 454개의 반응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좋은 아이의 특성은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 = 998.72$, $df = 5$, $p < .001$. 좋은 아이는 성격특성 중에서 주로 호감성과 성실성 특히, 호감성이 거의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했다. 좋은 아이는 남을 돕거나 배려해 주고 사이좋게 지내는 등 타인지향적인 특성, 말 잘 듣고 떼쓰지 않으며 예의를 지키는 등의 순종적인 특성 그리고 성실성과 관련해서 약속을 잘 지키고 독립적인 특성 등을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나쁜 아이의 특성도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들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 = 1625.69$, $df = 5$, $p < .001$. 좋은 아이와 마찬가지로 나쁜 아이도 거의 전적으로 호감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나쁜 아이는 시끄럽고 장난이 심하며, 고집부리거나 떼쓰고 말을 듣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욕심 많으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때리고 비방하며, 거짓말을 하고 예의 없고 순진하지 않은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좋은 아이의 특성은 아이다운 아이의 특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반면, 어른다운 어른의 특성과는 매우 유사했다. 반면에, 나쁜 아이의 특

표 4. 좋은(혹은 바람직한) 아이와 나쁜(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아이의 특성들

차 원	반 응 내 용	백분율
<u>좋은(혹은 바람직한) 아이(총 348개)</u>		기타: 11.9
외향성	조용한(2)	2.0
호감성	잘 웃는(4.5) 배려하는(8.8) 돕는(5.7) 보살피주는(5.1) 예의바른(6.2) 양보하는(2) 정직한(2.3) 말 잘 듣는(22.9) 때 안쓰는(5.4) 사이 좋음(7.6)	70.5
성실성	규칙과 약속 지키는(3.7) 정리 잘하는(2.5) 독립적인(3.7) 참을성 있는(9)	10.8
정서안정성	차분한(6) 잘 자는(9)	1.5
교양	지혜로운(2)	2.0
신체적 특성	건강한(1.1)	1.1
<u>나쁜(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아이(총 45개)</u>		기타: 5.1
외향성	시끄러운(2.6) 장난이 심한(2.0) 남을 꺼리는(2) 자기주장이 강한(2)	5.0
호감성	잘 우는(3.3) 거짓말하는(4.4) 자랑하는(1.5) 잘난 척하는(3.3) 고자질하는(2.4) 고집부리는(4.2) 울며 떼쓰는(12.1) 괴롭히는(11.9) 비방하고 무시하는(2.2) 눈치 없는(1.1) 눈치만 보는(2.2) 반항적인(8.1) 예의 없는(6.4) 자기중심적인(8.1) 순진하지 않는(5) 욕심 많은(2.6) 기타(5.7)	84.5
성실성	산만한(2) 어지러운(7) 신뢰할 수 없는(2) 책임감이 없는(2)	1.3
정서안정성	질투가 심한(9) 짜증이나 화를 내는(4)	1.3
교양	너무 똑똑한(1.5) 다 잘하는(2) 지각이 없는(2)	1.9
신체적 특성	너무 예쁜(2) 허약한(7)	0.9

성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아이다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일치했다. 이는 아이가 아이다운 때보다는 어른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음을 시사한다.

연구 2: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연구 1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와 어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이다운 아이와 어른다운 어른은 성격적인 측면에서 거의 반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은 아이다운 아이와 어른다운 어른을 매개해주는 어

떤 단계가 존재하는가 이다. 연구 1의 결과에 따르면, 아이와 어른 사이에는 약 13세에서 21세까지의 또 다른 연령층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연령층의 사람들이 아이와 어른의 특성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 2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로 지칭되는 이 연령층의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기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연구 2에서 얻은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겠다.

아동을 성인과 구분되는 존재로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청소년기가 인생에서 그리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다. 아동이 성인과

는 다르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된 후에야 비로소 청소년기가 아동과 성인의 중간에 위치한 이행기로서 평가받을 수 있었다(김정운, 2001b). 비록 18세기 이전에도 오늘날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청소년기가 존재했을 수 있지만(Speitkamp, 1998; 김정운, 2001b에서 재인용), 청소년기에 대한 공식적인 인식은 20세기 초에 이루어졌다(Hall, 1904). 산업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성인들이 대체함으로써, 10대들은 어른들과 분리되어 많은 시간을 또래들과 보낼 수 있었다. 이 때, 그들은 순진무구한 아동과는 구별되는 그러나 아직까지 어른의 역할을 맡을 수는 없는 존재로 지각되었다. 오늘날은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노동력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청소년기 경험이 확대되는 강한 경향성이 있다(Hartung & Sweeney, 1991).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견해들이 제기되어 왔다. 프로이트의 발달이론에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성기기는 그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안나 프로이트는 청소년기에 대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설명을 확대하여 이 시기를 혼란과 갈등의 시기로 규정하였다(김정운, 2001b).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잠복기를 지난 이 시기에 자아와 원초아의 갈등이 재현되는데, 원초아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자아의 패배로 원초아의 본능적 욕구가 행동을 지배할 경우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방황과 혼란의 시기일 수밖에 없다. 이는 청소년기를 ‘질풍과 노도’의 시기로 보는 Hall의 견해와 상통한다. 한편, Friedenberg(1959)는 청소년들이 부모 등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과 대립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Bandura(1964)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질풍과 노도의 시기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갈등과 방황이 반드시 청소년기의 특성이 아닐

수 있다. Erikson(1959)은 이러한 두 입장을 통합하여 청소년기를 반항과 갈등의 시기만도 아니고 복종과 동조의 시기만도 아닌 정체성 확립과 정체성 혼미의 사이에 놓여 있는 시기로 보았다.

이러한 특성 즉,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단계 및 정체감의 성취와 관련된 특성과 더불어, 한국의 청소년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독특한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역사적 시기의 청소년들과는 다른 점들을 보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근거하여 구성된다고 볼 때, 한국인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개념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연구 2에서는 한국대학생을 이용하여 청소년기에 대한 개념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방 법

참가자

서울에 위치한 한 사립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57명(남학생 16명과 여학생 41명)이 연구 2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3.09(SD = 4.16)세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연구 2에 참가하였으며 실험참가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

측정도구와 절차

연구 2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방형(open-ended)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에게 먼저 연구 1에

서 얻은 결과에 근거하여 13세부터 21세까지의 연령에 속하는 사람을 청소년으로 지칭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 다음, 아이와 대비되는 청소년의 특성들, 어른과 대비되는 청소년의 특성들, 청소년다운 청소년, 행복한 청소년, 불행한 청소년(좋은(혹은 바람직한) 청소년 및 나쁜(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청소년의 특성들을 각각 하나씩 총 7개의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질문에서 각 참가자들이 기술할 수 있는 특성의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각 질문에 관련된 특성들은 신체적, 성격적, 대인관계적, 사회적 등 모든 측면과 관련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자료 수집은 심리학 관련 수업시간에 이루어졌는데, 수업이 종료된 후 설문지를 참가자들에게 배부하여 주어진 문제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결과 및 논의

연구 1에서처럼, 각 문제별로 제시된 특성들을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성격특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Goldberg(1990)의 Big Five에 근거하여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 안정성 그리고 교양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아(self)와 관련된 내용은 자아 관련 특성으로, 신체 및 외모와 관련된 내용은 신체적 특성으로, 가족이나 친구 및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은 관계적 특성으로, 가정이나 주변적 상황과 관련된 반응은 환경적 특성으로, 그리고 일, 직업 및 학업성취 등과 관련된 반응은 과업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료의 분석은 먼저, 참가자들의 성별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참가자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최종 자료분석은

전체 반응에 근거하였다.

먼저, 아이 및 어른과 대비되는 청소년의 특성 333개와 308개를 각각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아이에 대비되는 청소년의 특성은 10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들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 = 197.89$, $df = 9$, $p < .001$.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은 아이에 비해 어른과 같은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아이에 비해 청소년은 성격적으로 타인에 대한 고려, 독립심, 책임감, 지적 능력과 더불어 반항심과 정서적 불안정성도 더 높았다. 또한, 청소년은 아이에 비해 자아에 대한 관심과 자아강도가 더 크고, 신체적으로 성숙하며 외모에 관심이 많고, 친구관계의 중요성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지만 부모 등과의 갈등도 경험하며, 과업과 관련된 활동도 많아진다.

어른에 대비되는 청소년의 특성도 10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들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 = 63.83$, $df = 9$, $p < .001$.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은 어른에 비해서는 아이 같은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어른에 비해 청소년은 더 외향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순수하지만 비판적이고 반항적이며, 과감하고 무책임하며, 정서적 불안정성이 더 높고, 지적인 능력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은 어른에 비해 자아강도가 낮고, 신체적으로 발달과정에 놓여 있으며,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크고, 환경적으로는 구속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여전히 의존적인 상태에 있으며, 과업적으로는 학업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와 어른의 중간 단계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아이나 어른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들 가령, 비판적이고 반항적일 뿐 아니라 민감한

표 5. 아이 및 어른과 대비되는 청소년의 특성들

차 원	반 응 내 용	백분율
<u>아이와 대비되는 청소년의 특성들 (총 333개)</u>		기타: 12.1
외향성	비밀이 많은 (9)	0.9
호감성	타인고려 (6) 배려하는 (6) 반항적 (1.8)	3.0
성실성	독립적 (8.1) 책임감의 증가 (3) 몰입과 진재 (6) 조심하느 (3) 기타 (3)	9.6
정서안정성	절제하는 (1.5) 고민하는 (1.2) 예민한 (9) 불안한 (3) 기타 (1.8)	5.7
교양	논리적 (1.5) 비판력 (2.2) 합리적 (9) 판단력 (9) 지력 증가 (2.5) 기타 (1.2)	9.2
자아 관련 특성	정체성 형성 (3.6) 자기개념 (3.6) 자아탐색 (4.2) 정체감 혼란 (6) 기타 (2.1)	14.1
신체적 특성	신체의 변화와 발달 (10.8) 외모에 많은 관심 (2.7)	13.5
관계적 특성	친구관계 중시 (8.7) 친밀한 관계의 형성 (1.8) 이성에 대한 관심 (7.5) 부모나 교사 등과의 갈등 (5.4) 기타 (2.4)	25.8
환경적 특성	제재를 받는 (9) 허용되는 (3)	0.9
과업적 특성	싫은 일도 하게되는 (6) 공부에 압박을 느끼는 (1.2) 구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1.9) 할 일이 다른 (9) 기타 (6)	5.2
<u>어른과 대비되는 청소년의 특성들 (총 308개)</u>		기타: 10.8
외향성	활기찬 (6) 열광적 (1.8) 자신감 있는 (6) 적극적인 (6) 기타 (3)	3.9
호감성	자기중심적 (2.9) 솔직 (1.6) 순수 (3.2) 이성세대에 비판적 (1.3) 반항적 (3) 개방적 (6) 기타 (1.3)	12.2
성실성	과감한 (1.3) 무책임한 (4.5) 성급한 (6) 기타 (9)	7.3
정서안정성	예민한 (2.6) 감정적 (1.6) 충동적 (1.3) 불안정 (2.3) 기타 (2.6)	10.4
교양	사고력 낮은 (2.9) 판단력 낮은 (3.2) 호기심이 많은 (2.6) 현실성이 낮은 (1.3) 경험이 부족한 (6) 어른을 따라하는 (1.3) 학습력이 높은 (6) 기타 (1.6)	14.1
자아 관련 특성	가치관이 불안정 (1.0) 자아강도가 약한 (2.6) 정체성이 혼란한 (3) 기타 (3)	4.2
신체적 특성	신체발달 중 (2.6) 외모에 관심이 큰 (1.0) 건강에 관심이 적은 (3) 기타 (3)	4.2
관계적 특성	대인관계를 중시 (3.2) 관계가 제한된 (6) 기타 (1.3)	5.2
환경적 특성	자유가 없는 (4.2) 제약을 받는 (3.6) 보호받아야 할 (1.9) 돈에 경제적으로 의존된 (5.8) 구애받지 않는 (1.6) 사회적 인정을 못 받는 (1.0) 기타 (6)	15.7
과업적 특성	잠재력이 큰 (2.3) 꿈이 있는 (4.5) 공부에 대한 강요 (2.6) 진로를 고민하는 (1.0) 기타 (1.6)	12.0

고 불안정하며, 자아정체감에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는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대인관계 특히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크고, 과업적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이 청소년기를 다른 발달시기와

표 6. 청소년다운 청소년의 특성들

차 원	반응내용(총 301 개)	백분율
외향성	도전정신(3.7) 적극적(1.3) 낙천적 및 명랑(5) 활동 및 열정(5) 강한 자기주장(1) 기타(1.7)	17.7
호감성	배려(1.6) 반항(2) 순수(4) 솔직(1.3) 복종(7) 예의 있는(1.3) 단정(1) 개방적(7) 기타(1.3)	13.9
성실성	규범준수(2.7) 자립(2) 근면(2) 검소(1) 실체적(1) 몰입(7) 기타(1)	10.4
정서안정성	감성이 풍부(2) 걱정과 고민(1.7) 절제(1) 기타(3)	5.0
교양	창조적(2.3) 호기심(1.3) 인격성숙(1) 비판적 및 건전한 사고(3.3) 기타(1)	8.9
자아 관련 특성	자기존중(1.3) 자아탐색과 고민(2.3) 주체적(1.7) 자아변화추구(1) 기타(6)	6.9
신체적 특성	건강(7) 신체의 발달(7) 수수한 외모(7) 젊은 신체(3) 기타(3)	2.7
관계적 특성	원만한(1.3) 이성에 관심(2) 친구관계 중시(4.7) 어른공경(2) 기타(1.3)	11.3
과업적 특성	열심히 공부(4.3) 꿈과 목표의 추구(10) 목표를 달성(7) 독서(1) 기타(2)	18.0
기타		5.2

는 구별되는 독특한 시기로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다운 청소년에 대한 특성 301개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이 특성들은 9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들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 = 64.42$, $df = 8$, $p < .001$. 아이다운 아이나 어른다운 어른에 비해서(표 2 참조) 청소년다운 청소년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청소년다운 청소년은 성격적 차원에서 호감성, 정서안정성 및 교양에서 아이의 특성과 어른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외향성 차원에서는 아이와 같은 활발한 특성과 청소년에게 독특한 도전적인 특성을 그리고 성실성 차원에서는 어른과 같은 독립적인 특성과 청소년에게 독특한 규범준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아를 탐색하고 존중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발달한, 친구나 어른 등과 원만한 대인관계 및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과업적으로는 목표를 추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이 가장 청소년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결과와 비슷하게 청소년다운 청소년이 아이 및 어른과 관련된 특성뿐만 아니라, 자아와 관련된 특성처럼 그들에게만 독특한 특성들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행복한 청소년에 대한 318개의 반응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행복한 청소년의 특성은 10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 = 438.75$, $df = 9$, $p < .001$. 행복한 청소년은 전체의 23.3%를 차지하는 성격적 특성으로는 외향적이고, 순수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책임감과 독립성 등 성실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지적 능력과 창조성 등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자아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나 자아탐색 및 정체성 확립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청소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관계적 특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41.1%). 즉, 행복한 청소년은 무엇보다도 가정이 화목하고 친구가 많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주변사람들로부터 사랑

표 7. 행복한 청소년의 특성들(총 318개)

차 원	반 응 내 용	백분율
외향성	낙천적(3.8) 적극적(2.5) 쾌활한(1.3) 자신하는(1.6) 기타(.6)	9.8
호감성	순수한(1.3) 공경하는(1.6) 겸손한(3) 감사하는(.6) 솔직한(.3) 기타(1.3)	5.4
성실성	책임감 있는(.3) 독립적(.6) 참을성 있는(.3) 최선을 다하는(.3) 기타(.6)	2.1
정서안정성	걱정 없는(1.3) 여유 있는(1.3) 안정된(.6) 만족하는(1.3) 기타(.3)	4.8
교양	창조적(.3) 호기심 있는(.3) 지적능력이 뛰어난(.6)	1.2
자아 관련 특성	정체성 있는(.9) 긍정적 자아개념(1.3) 자아탐색(1.6) 자아개발(9)	4.7
신체적 특성	건강한(3.1)	3.1
관계적 특성	가정이 화목한(15.4) 원만한 대인관계(6.2) 많은 친구(8.5) 이성친구 있는(1.6) 의지할 사람 있는(1.9) 주변인의 신뢰와 관심을 받는(6.5)	41.1
환경적 특성	경제적 풍요(3.1) 자유롭고 기회가 많은(.9) 건전한 환경(.6) 기타(1.3)	5.9
과업적 특성	꿈과 목표가 있는(7.9) 일에 매진하는(5.4) 공부 잘하는(2.8) 취미가 있는(1.3) 목표를 달성해 가는(1.3) 능력이 있는(.6) 기타(1.3)	20.6
기타		1.3

과 관심을 받는 청소년이다. 과업적 특성도 행복한 청소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행복한 청소년은 꿈과 목표가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경제적 풍요와 같은 환경적 특성도 행복한 청소년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불행한 청소년에 대한 305개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외향성(5.5%), 호감성(5.5%), 성실성(6.5%), 정서안정성(3.0%), 자아 관련 특성(9.7%), 신체적 특성(3.5%), 관계적 특성(36.9%), 환경적 특성(8.0%), 과업적 특성(14.0%)으로 나타났다. 이 9개의 유형들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chi^2 = 263.42$, $df = 8$, $p < .001$, 내용적으로는 행복한 아이의 특성과 반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와 어른의 경우처럼 청소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관계적 특성임을 지적해 준다.

좋은(혹은 바람직한) 청소년과 나쁜(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청소년 각각에 대한 310 반응과 267 반응의 분석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좋은 청소년의 특성은 9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04.67$, $df = 8$, $p < .001$. 이 표에서 보듯이, 좋은 청소년을 규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었으며, 특히 성격적으로는 외향성과 호감성, 그리고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청소년은 성격적으로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외향적 특성, 타인에 대한 예의와 공경 및 배려 등 타인지향적 특성, 규범준수와 책임감을 갖춘 성실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과 지적 능력 등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청소년은 긍정적 자아개념과 정체성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계적으로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부모에 대한 효도와 배려 등의

표 8. 좋은(혹은 바람직한) 청소년과 나쁜(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청소년의 특성들

차 원	반 응 내 용	백분율
<u>좋은(혹은 바람직한) 청소년(총 310개)</u>		기타: 4.5
외향성	낙천적(5.1) 적극적(2.6) 도전정신(1) 사교적(1.6) 자신하는(1.6) 활동적(.6)	12.5
호감성	어른 공경하는(4.2) 겸손한(6) 배려하는(3.6) 예의바른(4.8) 정의로운(1.6) 감사하는(1.3) 순수한(1) 이해하는(1.3) 개방적(1) 기타(1.9)	21.3
성실성	규범을 지키는(1.6) 책임감 있는(2.3) 성실한(2) 건전한(6) 실체적(6) 참을성 있는(6) 독립적(6) 신중한(3) 도덕적인(3)	8.9
정서안정성	절제하는(2) 만족하는(3) 여유 있는(3)	2.6
교양	판단력 있는(2.6) 많은 지식과 경험(1.6) 창조적(1.3) 호기심(6) 기타(6)	6.7
자아 관련 특성	긍정적 자아개념(3) 정체감 있는(4) 자아성찰(2) 자아개발(6)	9.6
신체적 특성	건강한(2) 단정한 외모(6)	2.6
관계적 특성	원만한 또래관계(7.3) 이성교제(6) 부모에게 효도(2) 부모와 친밀(1)	10.9
과업적 특성	목적 있는(1.9)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16.5) 취미 있는(1) 기타(1)	20.4
<u>나쁜(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청소년(총 267개)</u>		기타: 9.9
외향성	비관적(4.9) 소심한(9) 힘이 없는(9) 수동적(.7)	7.6
호감성	반항적인(5.2) 거짓말하는(1.9) 예의 없는(4.5) 자기중심적(4.9) 괴롭히는(3.7) 배려하지 않는(1.9) 폭력적(2.6) 말 안듣는(1.5) 부도덕한(2.2) 순진하지 않은(1.5) 자만하는(1.1) 욕을 하는(1.1) 폐쇄적(.7)	32.8
성실성	(담배, 술 등) 금지된 것을 하는(7.1) 범법행위를 하는(6) 무책임한(4.1) 의존적(7) 불성실한(2.6)	20.5
정서안정성	불안한(7) 불만스런(1.9) 충동적(1.9) 우울한(1.1) 감정적(.4)	6.0
교양	사고가 좁은(7) 교양이 없는(4)	1.1
자아 관련 특성	부정적 가치관(7) 부정적 자아개념(4.9) 정체성 결여(1.1) 기타(4)	7.1
신체적 특성	외모가 이상한(1.1) 머리를 염색한(7)	1.8
관계적 특성	문제 있는 대인관계(3) 불량한 친구(1.5) 부모와 나쁜 관계(1.9) 기타(7)	7.1
과업적 특성	공부하지 않는(2.6) 노력하지 않는(1.1) 목표가 없는(3) 취미 없는(4)	7.1

특성을 갖고 있었고, 과업적으로는 목표 및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표 8에서 보듯이, 나쁜 청소년의 특성의 특성도 9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들간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 = 218.62$, $df = 8$, $p < .001$. 나쁜 청소년은 좋은 청소년과 전반적으로 대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성격적으로 낮은 호감성과 성실성이 나쁜 청소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들은 비관적이

고 소심한 내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반항적이거나 폭력적 등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대신 자기중심적이고, 규범을 어기고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등 성실하지 않으며, 정서적으로도 충동적이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쁜 청소년은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정체감의 결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관계적으로도 부모나 친구 등과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과업적으로는 목표가 없으며 주어진 과업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성격적으로 외향성, 호감성 및 성실성 차원은 좋은 아이, 좋은 청소년 및 어른다운 어른을 규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나 어른의 경우와는 달리 좋거나 나쁜 청소년을 규정하는데 관여하는 독특한 요인들이 존재했다. 즉, 자아 관련 특성, 관계적 특성과 과업 관련 목표지향적 특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와 같은 특성들이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임을 함축해 준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 두 연구를 통해 아동과 어른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살펴보았는데, 그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른과 대비되는 아이나 아이다운 아이는 주로 성격적인 측면, 특히 높은 외향성 그리고 낮은 호감성과 성실성에 관련되어 있었다. 반대로, 어른은 아이와 반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어른다운 어른은 호감성과 성실성이 높았다. 둘째, 아동과 어른의 행복과 불행은 거의 동일한 요인 특히, 신체적, 관계적 및 환경적이거나 과업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래서, 행복

한 아이와 행복한 어른은 건강하고, 친구가 많고 가족이 화목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경우였다. 셋째, 좋은 아이(혹은 바람직한)와 나쁜(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아이는 성격 차원 중에서 특히 호감성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좋은 아이는 타인배려적이고 순종적이며 독립적이고 성실한 경우다. 넷째, 청소년은 대부분 성격적 특성 이외의 자아개념, 신체적, 관계적, 환경적 및 과업적 특성에서도 아동과 어른의 중단단계에 놓여 있었으며, 청소년다운 청소년의 특성은 이러한 다양한 차원과 관련되어 있었다. 다섯째, 아이와 어른의 경우처럼 청소년의 행복과 불행은 성격적인 특성보다는 신체적, 관계적, 과업적, 환경적 및 자아관련 특성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었다. 마지막으로, 좋은 청소년과 나쁜 청소년은 아이와 어른처럼 성격특성의 호감성과 성실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지만, 그 뿐만 아니라 자아관련 특성이나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도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아동과 어른에 대한 사회적 표상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대학생들은 아동과 어른을 성격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표 1과 표 2 참조). 아이란 잘 뛰어 놀고 활발한 존재이며, 타인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순진하고 솔직한 특성이 강했다. 또한, 아이는 참을성이나 책임감이 없고 의존적이며 충동적인 존재로서, 호기심이나 상상력은 많지만 지식이나 사고수준은 낮은 상태에 있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아이가 아이다운 아이로 평가되었다. 한편, 어른이란 아이와는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존재이며, 특히 어른다운 어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등 자신보다는 타인

을 우선시하며, 참고 절제하며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대학생들이 ‘아동을 단지 어른의 축소판’(Aries, 1962)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또한, 아이다운 아이와 어른다운 어른의 특성에서 보듯이, 아동이 어른과 상당히 반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아동이 어른과는 다른 차원의 특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동일차원의 대척점에 위치하는 존재이며 아이의 이러한 특성은 발달 과정을 통해 달라진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대학생은 어른과 대비되는 아이, 특히 아이다운 아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아이다운 아이는 크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 같지 않다. 표 4에서 보듯이, 좋은 혹은 바람직한 아동은 타인을 고려하고 도와주거나 타인과 사이좋게 지내는 타인배려적 특성, 말 잘 듣고 떼쓰지 않으며 예의를 지키는 순종적인 특성,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고 독립성이 강한 성실성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나쁜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아이는 높은 외향성과 낮은 호감성으로 규정되는 바, 시끄럽고 장난이 심한 특성, 떼쓰고 고집부리는 등 자기중심적 특성, 타인을 괴롭히거나 비방하는 공격적 특성, 그리고 예의 없고 말을 잘 듣지 않는 반항적인 특성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아이다운 아이의 특성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아이다운 아이의 특성 중에서 상당 부분이 나쁜 아이의 특성과 일치하지만, 좋은 아이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한국대학생들이 아이다운 아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좋은 아이의 특성은 어른다운 어른이 갖추고 있는 특성과 상당히 일치한다. 표 2에서 보듯이, 어른다운 어른의 특성들은 대부분 매우

긍정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청소년다운 청소년의 특성도 마찬가지다. 이는 어른답다 혹은 청소년답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좋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이답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아이도 어른과 비슷할 때 좋은 아이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가 그 자체로서 권리의 주체이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라는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에, 루소나 로크의 아동관(송명자, 1999)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동은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이는 아동이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존재함을 함축한다. 한국사회의 아동에 대한 한가지 개념은 ‘미래의 희망으로서의 아동’인데, 이렇게 존재하는 아동은 사회적으로 그 의미를 미래에서 얻기 때문에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김정운, 2000, 2001a).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아동으로서가 아니라 성인과 같은 특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성인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좋은 아동의 말 잘 듣고 예절 바른 특성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UN이 공포한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권리’ 개념은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생소한 용어일 수 있다. 한국에도 아동권리학회가 창립되는 등 이러한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어쩌면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의 민주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내용적 함의를 축적한 것이기에 현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아동권리의 개념은 너무 낯선 것일 수도 있다(신우철, 1997). 여전히 유교적 가치체계에 근거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아동 그 자체보다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사회화된

이상적인 인간상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본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이상적 인간상은 다름 아닌 어른다운 어른이었다. 이처럼 아동의 성인화를 교육과 양육의 주목적으로 추구할 때, 가정에서 아동과 부모의 관계와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권위적이고 위계적 특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법적으로 규정된 부모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주장할 수 있고, 부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의 부모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경우 만약 학생이 자신의 체벌행위를 법적으로 문제시한다면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을 것이다(이재연과 이소라, 1998).

본 연구에 따르면, 아동과 어른의 행복과 불행은 거의 동일한 요인들 특히, 신체적, 관계적 및 환경적이거나 과업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었다. 행복한 아이는 활발하고 낙천적이며 잘 웃고, 건강하며, 친구가 많고 가족이 화목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였다. 행복한 어른도 타인지향적이며 성실하고, 건강하며, 친구가 많고 가정이 화목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경우였다. 이러한 기준은 몇 가지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친구나 가족 등과의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주의적 판단체계이다. 일찍이 동서양의 문화적 특성을 탐구한 많은 연구들은 한국사회를 포함한 동양권의 문화가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Triandis, 1995). 본 연구 역시 한국인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관계적 특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한국인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가족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른바 가족주의 특성이다. 한국사회를 연구한 대다수의

문헌들은 한국문화의 대표적 특성으로 가족주의를 꼽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주의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과 사회적 구조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최봉영, 1994; 최재석, 1965).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가족이 한국인들의 행복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 셋째, 한국 어른들의 행복은 그들의 직업적 성취 등 사회적 성공에 의해 좌우되었다.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은 개인에게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어른의 경우 능력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가령, 자존감이나 자아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의 논의와 관련해서, 행복한 아이와 좋은 아이 그리고 행복한 어른과 어른다운 어른을 비교해 보면,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상당히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좋은 아이란 타인을 배려하고 말을 잘 듣는 등 타인지향적인 특성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결정되었다. 반면, 행복한 아이는 대부분 건강하고, 친구가 많으며, 가정이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경우였다. 일반적으로 볼 때, 좋은/나쁜 등의 평가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규범적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한/불행한 등의 평가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의 속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대학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아동 및 어른과 개인적으로 행복한 아동 및 어른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기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아동과 어른에 대한 판단기준이 두 개로 구분된 이중구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판단기준은 모두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 즉, 가족주의와 관계주의(김지신과 박성연, 1997)의 특성에 상당히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은 아동으로부터 어른으로 발달해 가는 이행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은 성격적인 측면에서 아동과 어른의 중간단계에 놓여 있어서, 외향성에서 내향성으로, 자아중심에서 타인중심으로, 의존과 무책임에서 독립과 책임감으로, 정서적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낮은 지적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체 및 자아개념도 발달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표 6 참조). 이는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반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과 어른을 청소년이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아동에서 어른으로의 이행적인 특성 이외에 그들에게만 독특한 특성들도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은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반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과업적으로는 공부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점들은 청소년기를 기술하는 여러 입장들, 가령 질 풍노도의 시기(Hall, 1904)나 갈등과 반항의 시기(Friedenberg, 1959) 혹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입장(Erickson, 1959) 등의 특성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다운 청소년의 특성은 좋은 청소년의 특성과 그 내용과 비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슷했다. 이것은 청소년답다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또한, 청소년다운 청소년은 아이다운 아이나 어른다운 어른의 경우보다도 더 많은 차원에 의해 결정되었다(표 6 참조). 아이다운 아이는 성격특성의 외향성과 호감성 그리

고 어른다운 어른은 호감성과 성실성에 주로 결정되었으며, 특히 호감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표 2 참조). 반면에, 청소년다운 청소년은 성격특성의 외향성, 호감성 및 성실성 이외에도 자아관련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과업적 특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해결해야 할 과업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함축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이와 같은 다양한 청소년의 과업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졌다. 가령, 한국의 청소년비행 연구들이 비행의 개인적 원인과 관련해서 다른 변인들은 도덕성 발달, 자아중심성, 자아정체감, 자아개념, 신체이미지, 인지 및 성격적 측면들이 다(곽금주, 윤진과 문은영, 1993).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 중에서도 호감성보다는 외향성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향성의 내용에는 적극적인 과업의 추구(가령, 도전정신이나 적극성, 활동 및 열정 등)와 자기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외향성의 내용들이 과업적 특성이거나 자아관련 특성과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유형의 특성이 특히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함축해 준다.

행복한 청소년은 행복한 아이나 어른의 경우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표 3, 4와 7 참조). 즉, 친구나 가족 등과의 원만한 관계적 특성, 목표를 추구하거나 달성한 과업적 특성, 경제적 풍요와 다양한 기회 등 환경적 특성 그리고 건강 등의 신체적 특성이 행복한 청소년을 결정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행복한 청소년의 경우 자아 관련 특성이 독특하게 등장하지만, 그 영향력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요인이 연령이나 세대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고 보편적임을 함축한다. 그러나, 행복한 청소년과 좋은(혹은 바람직한) 청소년의 관

계는 아이나 어른의 경우와는 좀 달랐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복한 아이와 어른을 규정하는 특징들은 좋은 아이와 어른다운 어른을 규정짓는 특성들과는 상당히 달랐다. 그러나, 표 7과 8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이중구조가 청소년의 경우에는 훨씬 약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좋은 청소년의 경우 성격특성의 외향성, 호감성 및 성실성 이외에도 자아 관련 특성, 관계적 특성과 과업적 특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청소년과 개인적으로 행복한 청소년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한국대학생을 이용하여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탐색하여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의 참가자, 연령적으로 청소년기말이나 성인초기에 해당되는 참가자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동, 어른 및 청소년과 관련해서 얻은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에 참가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아동과 어른 및 청소년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어른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연구참가자들이 미래에 도달하게 될 상태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한 어른은 어른다운 어른과 같지 않았다. 이처럼 이분화된 성인의 모습 때문에, 본 연구의 참가자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른으로서의 자신의 이상적인 상을 하나의 통합체로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결국,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대상에 대한 특정 집단의 사회적 표상은 그 집단이 그 대상을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관련된 현재와 미래의 행동에도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서,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과 다른 종류의 연구대상자들을 이용할 경우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령, 학부모나 교사 등의 표본을 이용해 보면, 이러한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 표상은 그들의 지도나 정책입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해당 집단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특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자신들이 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간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고 세대간의 차이점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에 비해 아동이나 어른의 경우, 좋은/나쁜 차원의 평가가 행복한/불행한 차원의 평가와 상당히 불일치했다. 그 가능한 원인으로 좋은 아동이나 좋은 어른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가 청소년에 비해 훨씬 더 붕괴되어 있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추후의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표상에 있어서의 성차 등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존재한다고 볼 때, 가령 행복한 여자어른과 행복한 남자어른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점도 추후의 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몇몇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개방형 질문의 순서가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행복한 아이와 아이다운 아이를 순서적으로 질문하면, 참가자들은 이 두 유형의 아이간에 독립적인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와는 다른 특성을 아이다운 아이의 특성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시순서가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문항제시순서의 역균형화(counterbalancing)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빈도에 근거해서 다양한 특성들을 밝히는데 그쳤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근거로 한 양적인 측정치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각 특성차원에서의 정도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여러 특성들간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들이 관련 변인들 가령, 적응이나 행복감 등의 변인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한국청소년 비행 연구의 동향과 심리학적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 (1), 12-27.
- 김정운 (2000). 불어쌍과 아동. *문화와 사람*, 1(2), 223-246.
- 김정운 (2001a). 아동의 생산과 소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 (2), 59-79.
- 김정운 (2001b). 청소년 문제의 기원: 청소년은 처음부터 '비행청소년'이었다? 미발표논문.
- 김지신과 박성연 (1997).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18(1), 125-142.
- 김태오 (2000). 소파의 아동관의 교육철학적 검토. *교육철학*, 18, 21-42.
- 김향은 (1995). 전통 아동교육서에 나타난 아동교육 원리. *아동학회지*, 16(2), 65-80.
-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최상진 (2000). 발달단계로서의 "칠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정례발표회*, 30-40.
- 문미옥과 류칠선 (2000).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아동학회지*, 21(1), 215-236.
- 박선영 (1981). *불교의 교육사상*. 서울: 동화출판공사.
- 백경임 (1980). 불타의 재가아동관.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병환 (1978). 여대생의 아동관 및 자녀관 조사. *여성문제연구*, 17-32.
- 송명자 (1999).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양재 (1995). 조선시대 교훈서에 나타난 아동연령 기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6(1), 183-197.
- 신우철 (1997). 아동의 권리: 한국의 문제상황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1 (1), 85-100.
- 안동현 (1997). 부모-자녀 동반자살. *아동권리연구*, 1 (2), 83-94.
- 이재연과 이소라 (1998).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 부모, 교사의 인식. *아동권리연구*, 2 (1), 25-41.
- 이희선 (1995).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신념. *아동학회지*, 16(1), 65-78.
- 전경숙 (1992).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 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2), 251-272.
- 전경숙 (1996).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17(1), 57-75.
- 조형근 (1999). 어린이기의 탄생과 근대적 가족모델. *교수신문원고*.
- 최봉영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I, II*. 서울: 느티나무.
- 최상진 (1998). 사회적 표상이론의 체계. 미발표논문.
- 최재석 (1965). *한국 가족제도사 연구*. 서울: 일지사.
- Aries, P. (1962). *Centuries of childhood*. New York:

- Knopf.
- Bandura, A. (1964). The stormy decade: Fact or fictions? *Psychology in the Schools*, 1, 224-231.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stelmann, L. J. (1983). Children before psychology: Ideas about children from antiquity to the late 1800s.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pp. 1-40). New York: Wiley.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Farr, R. M. (1987). Self/Other Relations and The Social Nature of Reality. In C.F. Graumann & S. Moscovici(eds.). *Changing conceptions of conspiracy*. New York: Springer-Verlag.
- Franklin, B. (1986). Introduction In B. Franklin (Ed.), *The rights of children* (pp. 1-23). New York: Basil Blackwell.
- Friedenberg, E. Z. (1959). *The vanishing adolescent*. New York: Dell.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 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16-1229.
- Goodnow, J. (1985). Changes and variation in ideas about childhood and parenting.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oodnow,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Hall, G. S. (1904). *Adolescence*.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Hartung, B., & Sweeney, K. (1991). Why adult children return home. *Social Science Journal*, 28, 467-480.
- Jaspars, M. F. & Fraser, C. (1984). Attitudes and Social Representations in R. M. Farr & S. Moscovici(eds.). *Social represent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scovici, S. (1981). On the social representations. In J. P. Forgas (ed.), *Social cognition Perspectives on everyday understanding*. London: Academic Press.
- Nimio, A. (1979). The naive theory of infant and other maternal attitudes in two subgroups in Israel. *Child Development*, 50, 976-980.
- Shweder, R. A., & Bourne, E. J. (1984). Does the conception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In R. A. Shweder & R. A. Levine(Eds.),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gel, I. E., McGillicuddy-De Lisi, A. V., & Johnson, J. E. (1980). *Parental distancing beliefs, and children's representational competence within the family context (ETS RR-80-21)*.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Speitkamp, W. (1998). *Jugend in der Neuzeit: Deutschland vom 16. bis zum 20. Jahrhundert*. Goe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lder, CO: Westview Press.
- 1 차원고 접수일 : 2002. 5. 6.
수정원고 접수일 : 2002. 8. 23.
최종원고 접수일 : 2002. 9. 13.

Social Representations on Children, Adults and Adolescents: With Focus on Personality, Relationships and Tasks

Taeyun Jung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Yonsei University

Sang-Chi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Hyo-Chang Kim

Using open-ended questionnaires,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explore social representations held by Korean undergraduates on children, adults and adolescents. Study 1 compared between children and adults with responses reported by 97 undergraduates(men: 28, women: 69). According to the results, characteristics of children distinctive from adults were basically personality-related and in particular, typical children were marked by high extroversion, low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and culture. Further, happiness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was determined mainly b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hysical health and socio-economical status. However, good(or desirable) children characteristic of high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were more similar to adults worthy of the name than to children worthy of the name. Using 57 undergraduates(men: 16, women: 41), Study 2 explored social representations of adolescen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overall adolescence were on the bridging state between childhood and adulthood. Happiness for adolescents, like both children and adults, was determined mainly b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o-economical status. Finally,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self-, task- and relationship-related characteristics were involved in judging good(or desirable) adolescents.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features of Korean culture and human development.

key words : Social Representation, Children, Adolescents, Adults, Personality, Relationships and Tasks.